

[illegible]

90. 8. 27 동아

환경문제 상담실 개설

28일부터...관련 학자등 상담요원 20명

오염 예방·피해구제 등 활동계획

환경오염의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녹색의 전화 환경문제상담실」이 28일부터 여성백인회관 2층(서울永登浦區汝矣島洞 11의13)에 개설된다.

이 상담실은 朴英淑 平
民黨부총재가 國회 保社
委위원으로 議政활동을 하
면서 환경오염문제의 심
각성을 피부로 느껴 환경
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각가지 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오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
결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설해 문을 열게
됐다.

상담방법은 ▲「녹색의 전
화」(842003, 2004)를 이용
한 전화상담(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상담신
청인이 관련자료를 갖고
와서 상담하는 면접상담
(화·수·금 오전10시~오후
5시) ▲상담위원이 신

청인과 오염현장을 찾아
가는 現地방문상담등이 있
다.

상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해공감집주, 공유수면 매립, 안전대책이 소홀한 개발전진설과 무분별한 관광개발사업등의 자연생태계 파괴행위에 대한 고발과 상담, 방사능이나 해양오염·산업폐기물·분진·소음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구제상담, 중소기업

업의 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법률상담 등이다.

상담위원은 차의원을 도와 八堂湖 골재순설현장, 雪嶽山자연파괴현장조사와 仁川해양 오염실태조사및 환경관계법인의 입법발의 등에 참여했던 차의원 보좌팀(3명)·환경관련학자·환경보호운동가등 20여명 으로 구성된다.

70년대 초부터 「자연을 되 살리자」는 「생명운동」에 가 답했던 최의원은 『정부가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좀 처럼 불가능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별 관심이 없는것 같다』고 말하고 「15 개부처로 분산된 환경업무로 일원화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보상해주는 법안이 마련 돼야한다」고 말했다.

〈高惠蓮기자〉

90.8.27. 중암.